영어유모아의 류형에 대한 분석

황 영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유모아와 격언, 속담 같은것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현시기 전문영어교육에서는 영어의 언어학적지식습득과 함께 영어모국어사용자들의 사상감정과 심리가 반영된 영어유모아, 성구, 속담들을 잘 알고 정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 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언어실천에서 널리 쓰이는 영어유모아의 류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영어유모아를 의미내용에 따르는 류형과 구조형식에 따르는 류형으로 분류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영어유모아를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할수 있다.

영어유모아에는 우선 정의 및 판단유모아(humorous definitions and verdicts)가 있다. 사물현상들에 대하여 정의를 주거나 판단을 내리는 유모아문장들은 보통 《be》동사가 포함된 긍정문이나 의문문이며 여기에 겹침말이 포함된 한줄짜리로 이루어진다.

례: Abstinence is the thin end of the pledge. (금욕은 거짓맹세)

우의 실례에서는 절정구가 성구 《thin end of the wedge》(성공의 실마리)의 의미와 겹치면서 웃음을 자아낸다.

유모아문장 《Education kills by degrees in UK.》(영국에서 교육은 점점 사멸되여간다. 영국에서 교육의 질이 학위바람에 떨어진다.)를 보면 이 유모아의 절정구에서 degree의 두가지 의미(정도, 학위)가 겹치면서 자본주의교육제도를 조소하고있다.

때때로 주어에 겹침말/절정대목이 놓일수 있다.

례: Is a polygon another name for a dead parrot?

(다각형이 죽은 앵무새에 붙이는 다른 이름인가?)

정의나 판단을 나타내는 영어유모아문장이 항상 겹침말을 포함하는것은 아니다. 정의 나 판단은 진실하게 들리는것만큼 우습고 비웃는 말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례: The chance of bread falling with the buttered side dow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st of the carpet.

(빵이 빠다가 발린쪽으로 주단에 떨어지면 주단의 가격과 정비례된다.)

Beauty's only skin deep, but ugly is ugly to the bone.

(아름다움은 거죽뿐이지만 흉한것은 뼈속까지 흉하다.)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훈계유모아(humorous exhortations)가 있다.

훈계유모아는 접수자에게 무엇을 할것을 요구하는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글형태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영국의 건물벽들에 불였던 선전물들에 씌여졌던 《Be like Dad, Keep Mum.》(아빠처럼 행동하고 엄마는 나다니지 않게 하라.)은 쓸데없는 말을 들고다니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한 훈계유모아이다.

훈계는 흔히 겹침말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응답으로 이어진다.

례: 명령문

응답 (+ 겹침말)

Don't blow your mind - give up smoking dynamite.

(환각제를 쓰지 말라. 헤로인흡연을 그만두라.)

Save water – bathe with a friend.

(물을 절약하라. 친구와 함께 목욕하라.)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평가 및 불평유모아(humorous comments and complaints)가 있다. 평가 및 불평을 나타내는 영어유모아는 앞의 부류와 비교해볼 때 어조상 온화하다.

평가유모아는 3인칭으로 표현되여 간접적으로 전달되므로 그 누구를 딱히 찍어말하지 않는다는 표상을 준다.

레: It's not the work that gets me down – it's the coffee breaks.

(나의 사기를 떨구는건 일이 아니라 커피시간이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but an onion a day keeps everyone away. (하루에 사과 한알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으나 하루에 양과 한개씩 먹으면 모든 사람이 곁에서 물러간다.)

불평유모아는 주로 1인칭으로 표현되나 자기의 감정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에둘러 유모아적으로 나타낸다.

례: Stop the world, I want to get off. (세계를 멈추어세우라. 나는 내리고싶다.)

우의 실례에서 《Stop the world.》는 일반성구 《Stop the bus.》(뻐스를 세우라.)와 련관 되면서 불공평한 세계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불만을 암시한다.

례: All this drinking will be urination of me.

(이 술을 다 마시면 난 오줌주머니가 될것이다.)

우의 실례에서 절정대목 urination은 단어 ruination을 거꾸로 철자바꾸기한 형태로서이 실례는 아래와 같은 영국의 세대주들의 정기적인 불평에서 유래된것이다.

례: All these dental charges will be the ruination of me.

(이 모든 치과치료비용이 날 망하게 하겠구나.)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멸시유모아(put-down humour)가 있다.

레: Lady: If you were my husband, I would put poison in your tea.

Man: If you were my wife, madam, I would drink it.

(녀성: 당신이 나의 남편이라면 난 당신의 차에 독약을 넣을거예요.

남성: 당신이 나의 안해라면 나는 그걸 마실거요.)

대부분의 서방문화들에는 소수민족을 조롱하는 전통적인 롱담들이 있다. 많은 프랑스 롱담들에서 조롱대상은 벨지끄인들이고 미국롱담에서는 뽈스까인들이며 브라질에서는 뽀 르뚜갈인들이, 잉글랜드에서는 아일랜드인들이 되고있다.

다음의 유모아는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유모아이다.

례: Recently heard over the loudspeakers at the Heathrow airport:

Air France - Flight 106, departing 2.30 p.m., Gate 12

British Airways - Flight 22, departing 2.35 p.m., Gate 10

Polish Air - Flight 157, when the little hand is on the four and the big hand

is on the twelve, Gate 5

(최근 영국히스로우비행장의 구내방송에서 울려나온 목소리:

《프랑스항공회사의 106호기는 오후 2시 30분 출발, 호구번호 12

영국항공회사의 22호기는 오후 2시 35분 출발, 호구번호 10

뾜스까항공회사의 157호기는 작은 바늘이 4에, 큰 바늘이 12에 갔을 때 출발, 호구번호 5》)

우의 실례에서는 비행기의 리륙시간을 알려주다가 뽈스까비행기에 와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듯이 표현하여 뽈스까인들을 조롱하고있다.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생활세태유모아(stock humour)가 있다.

영국사람들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사람들과 외국인들, 정치인들, 성직자들, 지어는 장모를 조롱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로부터 많은 유모아류형들이 나왔다.

례: I always know when it's the mother-in-law at the door because as soon as they hear her knock all the mice start throwing themselves into the traps.

(나는 문앞에 와있는것이 장모인줄을 언제나 알수 있어. 장모가 문을 두드리자마 자 쥐들이 모두 덫안으로 뛰여들거든.)

우의 실례에서는 장모가 일상적으로 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린다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영국인들의 생활세태를 보여주고있다.

영국사람들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도시생활을 놓고 빈정거리는 관습이 있다.

레: Living in Coventry is like watching a plank warp.

(코벤트리에서 사는것은 판자가 휘는것을 지켜보는것이나 같다.)

우의 실례에서는 단어 warp의 다의적의미(구부러지다, 괴벽하게 하다)를 리용하여 지루한 도시생활을 유모아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즉 코벤트리시에서 사는것은 판자가 휘여드는것을 지켜보는것과 같은 세월없는 노릇이라고 조롱조로 나타내였다.

영국에서는 년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해변가휴양지들이 흔히 《침침한 시골유 모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례: Harwich for the continent, Frinton for the incontinent. (도로표식)

(대륙에로 가려면 하위치에로, 양로원으로 가려면 프린톤에로.)

우의 실례의 하위치는 유럽대륙에로 배가 떠나가는 해변가이름이고 프린톤은 늙은이들이 많이 모여사는 고장이름으로서 여기에서는 continent와 incontinent의 꼬리운맞추기수법을 리용하여 률동을 보장하고있다.

다음으로 영어유모아를 구조형식에 따라 분류할수 있다.

영어유모아는 짧은 한줄짜리로부터 매우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형식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어유모아에는 우선 틀에 박힌 유모아(formulaic humour)가 있다.

영어모국어사용자들속에는 듣자마자 유모아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리게 하는 유모아공 식들이 있다.

그 공식의 하나로 첫머리부름말형식을 들수 있다.

영어유모아에는 흔히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Have you heard this one?》, 《That reminds me ...》, 《A funny thing happened》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모아들의 형식을 첫머

리부름말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 례: Did you hear about the Irish centre forward who missed a penalty but scored on the action replay?》(11m벌차기는 실수하였지만 다시 차넣어 득점하였다는 아일랜드중앙공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 이 유모아의 골자는 아일랜드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득점할수 있다는 초현실적인 암시인것이다.
 - 례: Mummy, Mummy, I don't like Daddy!
 - (엄마, 엄마, 난 아빠가 싫어요!)
 - Then leave him on the side of your plate and eat your vegetables.
 (그럼 아빠를 접시한쪽에다 밀어놓고 남새나 먹으렴.)

우의 실례유모아는 식탁에서 포크와 식탁용칼을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식사때 음식찌 끼들을 접시의 한쪽구석에 밀어놓는 문화적관습에 배경을 두고있다.

- 례: Waiter, waiter, there's a fly in my soup!
 - (접대원, 접대원, 내 국에 파리가 있소!)
 - Don't worry sir, there'll be no extra charge!
 (걱정마세요, 돈을 더 물라고 하지 않을레니까요!)

우의 실례에서 발신자는 대화토막을 긴 본문내에 끼워넣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문맥화하지 않았다. 대화에서는 단순히 접수자가 Mummy나 Waiter와 같은 첫머리부름말을 유모아신호로 인식할것이라는 예측에서 사용하여 언어적의미와 어용적의미의 충돌로 유모아적효과를 실현하였다.

영어유모아공식의 다른 하나로 《OK》공식을 들수 있다.

영어유모아에서 흔히 보게 되는 《OK》공식은 앞의 주장을 강조해주면서 이따금씩 의문부호를 달아 《Do you understand?》(알만해?)를 의미한다. 한편 이 공식의 영어유모아들은 공통적으로 《This has to be accepted.》(이대로 받아들여야 해.) 혹은 《You'd better believe it if you know what's good for you.》(당신은 자기한테 무엇이 유리한지 안다면 그걸 믿는게 좋아.)의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 이 공식의 사용령역은 넓어져 축구강팀에 대하여 《Chelsea Rules OK?》(첼씨팀이 일 등이야. 알만해?)라고도 표현하였다.
 - 이 유모아형식은 비꼬아 변경되기도 한다.
 - 례: Synonyms govern, all right. (동의어들이 제일이야, 알만해.)
 - Einstein rules relatively, OK.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리론이 제일이야, 알만해).
 - Dyslexia rules, KO. (독서장애가 왔어, 이젠 다야.)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례식화된 유모아(Humour as Ritual)가 있다.

일부 영어유모아의 사용에서는 발기자의 발언내용에 듣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접수자는 발언내용을 듣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발기자와 실제적으로 협 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모아를 호상작용유모아(interactive humour)라고 하며 여 기에서는 단순한 질의응답교환형식으로 된 수수께끼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영국어린이들이 즐겨쓰는 수수께끼를 실례들어보자.

례: -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jeweler and a jailor?

(보석상과 감옥간수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One sells watches and the other watches cells.
 (한사람은 손목시계를 팔고 다른 사람은 감방들을 지킨다.)

우의 실례에서처럼 공식《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X and a Y?》는 수수께 끼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이다. 물론 보석상과 감옥간수사이에는 차이가 수십가지나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상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것들이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camel and a dromedary?》(락타와 단봉약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비교대상이 적중하게 설정되면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을것이다. 그러나 우와 같이 질문의 어리석은 비교대상들이 설정되여 그것자체가 단어유희의 신호로 되였다.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서사형식의 유모아(Humour as a Narrative Form)가 있다.

서사형식의 유모아는 영어에서 공통적인 담화의 모형(pattern)인 《문제-해결》형식을 취한다.

레: Headache? Tense, nervous headache? Take Anadin.

(머리아픈가? 긴장되고 신경적인 머리아픔? 아나딘을 먹으시오.)

우의 약광고실례에서는 《정황-문제-해결》형식을 간단히 몇글자로 해결하였다.

서사형식의 유모아도 광고문과 마찬가지로 흔히 명백한 문제를 제기한다.

레: There was a Scotsman, an Italian and an Irishman. They wanted to watch the Olympic Games but they didn't have tickets, so they decided to go as athletes. The Scotsman pulled a bollard out of the ground, put it over his left shoulder, went to the ticket office and said: "Jock McTavish, Scotland, Caber Tossing." And in he went.

The Italian found an empty plate, put it under his left arm, went to the ticket office and said: "Giovanni Bianchi, Italy, Discus Throwing." And in he went. The Irishman scratched his head and thought. Then he put some barbed wires under his left arm, went to the ticket office and said: "Paddy Murphy, Ireland, Fencing."

(스코틀랜드사람과 이딸리아사람 그리고 아일랜드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올림픽경기를 보고싶었으나 입장표가 없어서 체육인으로 가장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스코틀랜드사람이 땅바닥에서 보호기둥을 뽑아서 왼쪽어깨에 멘 다음 매표구로 가서 《스코틀랜드인 죠크 먹태비쉬, 장대던지기선수요.》라고 말하고는 입장하였다.

이딸리아사람은 빈 쟁반을 하나 찾아들고 왼쪽겨드랑이에 끼더니 매표구로 가서 《이딸리아인 죠반니 비안끼, 원반던지기선수요.》라고 말하고 입장하였다.

아일랜드사람은 머리를 긁적거리며 생각하더니 왼쪽팔에 철조망을 끼고 매표구로 가서 《아일랜드인 패디 머피, 격검선수요.》라고 말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아일랜드사람이 주인공으로 되여있는 세번째 사건이 절정대목이다. 즉 언제나 아일랜드사람이 어리석은짓을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다. 앞의 두 부분은 마지막절 정대목을 위한 준비단계로 된다.

접수자는 단어 《fencing》(격검, 울타리치기)의 겹침말을 통해 그것을 다른 두 사람이 언급한 장대던지기와 원반던지기와 부분적으로 다시 련관시켜보면서 내재된 암시를 찾아 내게 된다.

영어유모아에는 또한 시형식의 유모아(Humour in Verse Form)가 있다.

일부 시형식의 유모아들은 꼬리운을 맞춘 2행시나 4행시와 같이 운률모양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꼬리우이 절정대목을 장식한다.

례: Candy 당과는

is dandy 우아하나

But liquor 주정은

is quicker 더 빠르구나

우의 실례의 4행시전체가 유모아로서 《Candy is dandy》는 본문이고 《liquor is quicker》는 응답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다른 전형적인 유모아시형식은 아일랜드의 5행시(limerick)이다. 5행시는 보통 운과 률동, 내용에서 엄격한 체계를 이룬다.

례: There was a young lady of Ryde,

Who ate some green apples and dies;

The apples fermented

Inside the lamented,

And made cider insider her inside.

라이드에 젊은 부인이 있었으니

파란 사과 몇알을 먹고 죽거니

사과는 사망된이의 몸안에서

발효되여

배속에서 사이다를 만들었다네.

우리는 영어유모아에 담겨진 사회문화배경적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영어교육에 옳게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영어유모아, 분류